

五

2

아니, 나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지. 아
니, 그 정도는 큰 의외였
나를 웃기라니 다시 물
해도 무슨 미진한 말
이 아니겠냐. 그 후 케친
도 영을 들었지. 언더워
를 받았지.

『그러케 놀라지도 안보』

珍島面
職員一同

다려나왔다 D 자신은

고의 일고 포위사포
있을지라도 일수만나신
가서보면 만 원이거니
되오시다

그시 영민을바라보
살피고자함

나도먼저 처음에너자
생도가 선생
말씀대로듣는이지아
하디랴유대다

珍島邑內
郭龍雲

사도 열개된 사일은
되 지 못하였을 지라도 사람
이란 것은 만년 천에 비로소
있었다(참음)가 돌을 화상

參 島 邑 內

趙 明 月

金錦香

參局郡縣莊園連湖里
金仁煥

金相珍

마음에 두었는지 불쾌
생긴 것을 살펴계دت스

다시

생각을 못만지가 살면 이 개
영지왕근데말이거야인
살남아게물? 나그들
출판술은밀쳐나히도하
사이더케틀로즈다

S, K, C가우리
있어

壽島邑內
金奉泰

2

아니, 나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지. 아
니, 그 정도는 큰 의외였
나를 웃기라니 다시 물
해도 무슨 미진한 말
이 아니겠냐. 그 후 케친
도 영을 들었지. 언더워
를 받았지.

『그러케 놀라지도 안보』

珍島面
職員一同

다려놓았다 D 자신은

[illegible]

사도 열개된 사일은
되 지 못하였을 지라도 사람
이란 것은 만년 천에 비로소
것과 같음 1) 가 돌을 화상

參 島 邑 內

趙 明 月

金錦香

參局郡縣莊園連湖里
金仁煥

金相珍

마음에 두었는지 불쾌
생긴 것을 살펴계도스
다시
생각을 못만지가 살면 이 개
영지왕은 두말이거야인
살남아게했어? 나그네
출생은온밀려나히도하
사이더케를조드나
있든 S, K, C가우로

壽島邑內
金奉泰

2

金融組合

1000

島面
一岡

10

郭龍雪

趙明目

金錦香

金仁煥

金相吟

金奉